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황해 르네상스' 꽃피우는 플랫폼으로

전남문화재단, '황해를 넘어서' 주제 발표...올해 4회째
8월30일부터 목포문예회관·남도전통미술관 등서 열려

문화적 의미에서 '황해'는 국가 경계가 상대적으로 무력화된 중립적인 탈 영토 문명의 공간을 은유한다. 중국 중심 대륙문명권이 아닌 한국과 일본, 중앙아시아와 인도 등이 만들어진 인류 보편문명의 공간이다. 또한 황해문명은 대륙뿐만 아니라 바닷길로 연결된 유동적인 구조로서 동아시아 문명과 연계되기도 한다.

(재)전라남도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16일 제4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주제를 '황해를 넘어서-Somewhere Over the Yellow Sea'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수목비엔날레는 오는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63일간 목포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진도 소전미술관·남도전통미술관, 해남 고산윤선도박물관, 땅끝순례문학관 등에서 열린다.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윤재갑 총감독(56)은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적 협력으로 연결된 '21세기 환황해 문화벨트, Pan-Yellow Sea Cultural Belt'를 꿈꾼다"며 "국제수목비엔날레가 동아시아 문명의 '황해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타자로서의 서구' 뿐 아니라 '타자로서의 중국'도 비판적으로 접근할 때 '새로운 수목'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의 '중심'의 해체가 아닌 '다양한 중심'의 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함을 전제한다.

이번 국제수목비엔날레 행사는 세 색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색인 '수목의 뿌리와 근간'은 해남 고산윤선도박물관에서 펼쳐진다. 공재 윤두서 작품을 필두로 수목의 뿌리와 근간을 확인한다. 땅끝순례문학관에서는 국내의 유명 작가들 작품을 통해 동시대 수목의 흐름을 조망한다.

채색수목 작품을 매개로 한국, 중국, 인도의 다양한 수목 작품을 조명하는 공간도 있다. 두 번째 색인 '수목의 줄기와 확장'은 진도 소전미술관을 중심으로 채색수목 작품의 기법과 역사 등을 풀어낸다.남도전통미술관은 소치에서 출발해 한국 근·현대 수목 근간을 이루는 한국화 거장들 작품을 '재유과 비움:여백의 미'의 관점으로 구성한다.

세 번째 색인 '수목의 글로벌화'는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며 인터랙티브, 미디어 영상 작품 등을 매개로 펼쳐진다. '새로운 자연과 움직이는 수목'으로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유형의 작품을 만난다.

윤 총감독은 "수목의 역사와 비전이 작은 호흡에서 시작해 큰 울림으로 확산되는 나팔관의 모양을 닮았다"며 "수목의 뿌리, 줄기, 세계화가 하나의 이미지로 집약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엔날레 기간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BLACK(가제)'이라는 주제로 대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녹우당(해남), 윤림산방(진도)에서부터 유럽 대가들 프란츠 클라인, 피에르 솔라주까지



제3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물드는 산, 멈춰선 물'을 주제로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펼쳐졌다.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들. <광주일보 자료>

수목의 미학을 탐색하는 특별전이 그것.

부대 행사도 풍성하다. 도민을 위한 '시군 수목기념전'을 비롯해 개막식 주요 내민 등을 위한 '프리뷰 운영, 대형 한지를 활용한 '수목 퍼포먼스' 등이 예정돼 있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올해 펼쳐지는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수목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다양성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고도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무국에서는 올해 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ARTOnO 아트페어, 인사이트센터 수목특별전시,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및 영호남 화합대추전 홍보관 운영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한빛 초대전... '빈 공간'이 상징하는 존재와 의미

2월 20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공간은 다양한 의미를 함의한다. 가시적인 공간 뿐 아니라 심미적인 공간, 상상적인 공간도 모두 공간에 포함된다.

오늘날 아파트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현대인들은 네모난 공간 속에서 생활한다. 물리적인 공간은 거주자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들에게 공간은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박한빛 작가는 일상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고 그 의미를 작품에 구현해왔다. 이번에 박 작가가 전남대 박물관(관장 정금희)에서 오는 2월 20일까지 '빈 공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제로 전시를 연다.

전시장에는 모두 '빈 공간'을 주제로 하는 40여 점이 출품됐다. 주제가 말해주듯 '빈 공간'은 우리들 주위에 포진해 있다. 물론 여기에서의 빈 공간은 물리적인, 가시적인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상징한다. 자신의 목소리가 가려진 채 불특정 다수의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공간은 다양한 상징성을 내재한다.

그러므로 '빈 공간'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수렴된다. 그러나 빈 공간이라 하여 특정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 터다. 침묵하듯 드러내지 않아도 그 존재가 부정될 수는 없다.

화면에 반복되는 사각형과 원형의 '빈 공간'들은 살면서 놓친 특정 순간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상징한다. 익명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의 운명은 빈 공간에 부러진 낯선 존재로 다가온다.

박 작가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라며 "추상적이고 조형적인 요소로 작품을 구현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금희 관장은 "여백처럼 보이는 빈 공간들로 저마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작품을 통해 고유한 '빈 공간'이 환기하는 공간의 다양성과 깊이 등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빈 공간: 존재하지 않는 것'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월5~14일 온라인 정시공모



지난해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행사 장면.

전남문화재단이 '2025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시공모를 진행한다. 오는 2월 5일~14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받으며 전라남도 내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모두의 문화예술교육', '유아 문화예술교육', '움짱 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등 총 5개 사업이다.

먼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생애주기별로 대상층을 구분하고 지역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두의 문화예술교육'은 다문화·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올해 신설한 '움짱 문화예술교육'은 통합 교육의 역량강화와 멘토링, 특강 등을 제공한다.

이외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프로그램을 기획·평가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도 마련된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기획을 통해 도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고 전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명화 감상하며 클래식 음악까지 '아트 콘서트'

2월 2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영국 내셔널 갤러리를 수놓은 명화들을 감상하면서 클래식 음악까지 즐기는 공연이 펼쳐진다.

(주)판테온이 살롱 드 교보 '음악이 함께하는 내셔널갤러리 랜선투어'를 오는 2월 2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연다.

강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이자 미술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아트 콘서트' 형식이다.

관객들은 한스 폴라인 작 '대사들', 브룬치노 '비

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 램브란트 '34살의 자화상'·'63살의 자화상' 등 화폭을 마주하게 된다. 윌리엄 터너의 '전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나 빈센트 반 고흐 작 '해바라기' 등도 저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도 울려 퍼진다. 모리스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시작으로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사라방드' 등이 감동을 선사한다.

바흐 곡 '칸타타 BWV 156 중 심포니아 아리오소',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 A장조 Op.81 중 1악장'도 레퍼토리에 있다. 다소니카르렛, 피아니스트

윤모영 등이 출연해 그림에 숨겨진 화가들의 이야기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해설을 맡은 신기환 도슨트는 고층도서관 '영국 달밤기행', 경북도교육청 청소년 프로그램 '도슨트와 함께하는 미술 여행' 등을 진행해 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시민과 고객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렉처 콘서트, 아트 콘서트 등 해설과 다양한 장르가 가미된 공연을 기획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피아니스트 윤모영

<판테온 제공>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원2길3(서원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